대학생 입맛 잡은 든든한 한 끼 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청년밥心'
6월 12일 연화사서 본격 실시
3일 만에 선착순 20명 마감돼
영양소 골고루 담은 식단 제공
"자연스레 불교에 다가갈 계기"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왼쪽)과 사무처장 덕운 스님이 학생들에게 직접 배식하고 있다.

"뭘 좋아할지 몰라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쭈볏쭈볏 연화사 공양간에 들어선 대학생들에게 스님이 다정히 말을 건넸다. 스님의 한마디에 어색한 공기는 금세 따스해졌고, 학생들의 얼굴에도 자그마한 미소가 피어났다. "더 먹으라"는 스님의 재촉(?)에 학생들은 맛있는 반찬을 마음껏 접시에 쌓아 모처럼 '집밥'다운 식사를 즐겼다.

고물가와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점심밥을 제공하는 나눔 활동이 펼쳐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복지재단)이 6월 12일 서울 연화사에서 진행한 '청년밥心-마음을 키우고 마음을 찌우다'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업은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경희대에서 '불교행복혼' 초청 강의를 진행하던 스님은 학생들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방법을 고민하던 스님은 연화사 공양간을 개방, 사찰음식 한 끼를 대접했다. 학생들은 단순히 "맛있다"는 말보다 "집밥 같아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스님은 든든한 밥 한 끼가 식사의 개념을 넘어, 학생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심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 확신했다. 스님은 곧장 이웃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돌며 사전 조사를 시작했고,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어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갔다. 6월 5일엔 연화사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메뉴 구성과 사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그렇게 이날 점심 메뉴는 토마토소스 푸실리 파스타, 단호박·감자 튀김, 야채 부침개, 야채 샐러드, 감자국, 청포묵무침, 가지각색 나물 반찬이 선정됐다. 후식으로 연화사 신도회가 후원한 수박과 요거트도 덤이다.

정성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맛볼 수 있었던 건 단 20명. 복지재단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으로 사전 예약한 학생들이다. 예약 시작과 함께 3일 만에 조기 종료될 정도로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백수정 경희대 불교동아리 부회장(한의학과 2·24)은 "오늘 같이 온 친구 중엔 불자가 아닌 친구도 있다. 이 친구들이 불교문화와 사찰음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며 "간이 세지 않고, 입맛에 맞춘 메뉴가 많아 맛있게 잘 먹었다.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주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불교는 항상 의지처가 되는 종교이다. 사찰이 집처럼 맛있는 것을 먹고 따뜻한 곳으로 여겨지길 원한다"며 "학생들이 밥 맛있게 먹고 평안한 마음을 얻어 우리사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학기 중 매주 수요일 연화사에서 경희대를 비롯한 인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년밥심'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연화사를 시작으로 대학과 밀접한 곳에 있는 사찰과 연계해 '청년밥심' 사업을 확대·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업로드되는 재단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jabinanum) '청년밥心' 피드에 선착순으로 댓글을 남기면 된다.

삶에 지친 청·장년 7일 여행, '명상하라!'

세계명상마을, 7월 13~20일
'청 · 장년 명상힐링캠프' 개최

대중이 언제나 부담 없이 수행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국민선원(國民禪院)'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삶에 지친 청·장년층을 위해 명상을 통해 몸을 돌보고, 마음을 살피는 특별한 캠프를 마련했다.

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 스님)은 7월 13~20일 '7일간의 멈춤 여행-선칠 집중수행' 청·장년 명상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명상총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세속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 여정이 될 전망이다.

그간 명상힐링캠프는 청·장년을 구분해, 2박 3일 등 짧은 일정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7박 8일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청·장년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청·장년이 한데 모여 장시간 수행으로 소통하면서 수행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참가자들은 캠프 동안 선명상 집중수행인 '선칠수행'으로 정진한다. 내면의 집중력을 키우는 참선·행선으로 일상에서 수행을 반복한다.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의 법문과 문답, 인터뷰로 스스로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도 갖는다. 종의 울림에서 고요함을 찾는 종송명상과 염력명상도 체험할 수 있다.

각산 스님은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인들이 이번 명상힐링캠프를 통해 직장 스트레스, 업무 압박 등 세속의 짐을 해소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대상은 20세부터 54세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숙박과 숙식은 무료로 제공된다. 당일 현장 접수는 불가하며, 숙소(개인실·다인실) 배정은 추첨으로 정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 세계명상마을(1577-4327)로 연락하거나 문자(010-6408-3280) 또는 이메일(gs3280@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아름다운동행, 튀르키예 '한국마을' 2차 지원

차양막 설치 · 식료품 지원
"조속한 일상 회복 기원"

지난해 튀르키예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선물했던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재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자비의 온정을 나눴다.〈사진〉

아름다운동행은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단지 '한국마을'을 방문, 튀르키예 한인회를 통해 식료품과 간식 등을 지원하고 각 가구의 차양막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에 위치한 '한국마을'은 이재민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하우스 단지다. 총 560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중 100동을 아름다운동행에서 지원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지진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건복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튀르키예 환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등 경제 사정마저 어려워지면서 지진 피해 복구는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구호의 손길도 점차 줄고 있다. 이재민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임시 일자리에서 얻은 수입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한국마을'에서 지내야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튀르키예 한인회와 협력해 한국마을 2차 지원에 나섰다.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철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을 막기 위해 한국마을 전체 가구에 철제 차양막을 설치했다. 각 가구에는 쌀과 렌틸콩, 올리브유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와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도 함께 제공됐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이재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조속히 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염원했다.

김내영 기자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2기 지원자 모집

7월 19일까지 참가 접수
7월 26일~8월 4일 열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첫' 출가학교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육으로 제2기 여성출가학교 참가자를 기다린다.

제2기 출가학교는 '나만 몰랐던 재밌는 출가생활-스님들과 열흘 살기'를 주제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여성출가학교는 한 달간 운영된 1기와 달리 기간을 단축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해 많은 사람이 입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열흘간 봉녕사에 머물며 한국 전통 승가의 수행과 삶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고불식, 삼귀의, 오계를 수지하고 발우공양, 조석예불 및 사시불공, 운력, 실참수행 등 일과를 수행한다. 부처님 생애와 계율, 기초교리 등 교리 수업과 자비수참 기도, 일보일배를 하며 한국 비구니 승가 생활 전반도 경험한다. 행다선 명상, 붓다볼 명상,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 등 봉녕사만의 특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대중생활에 지장 없는 17세~60세 여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50만원이다. 단 고교생·대학생·대학원생·봉녕사 기초교리반 수료생에 한해 10% 할인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7월 19일까지 봉녕사 홈페이지(www.bongnyeongsa.org)에서 신청하거나 팩스(031-253-3877) 또는 우편(7월 18일 소인분)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7월 22일 봉녕사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발표된다.

김내영 기자

한국·베트남 불교, 현대적 관점서 살피다

한마음과학원, 6월 29일 학술심포지엄

한국 불교와 베트남 불교를 현대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6월 29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2024 한마음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한 한국과 베트남 불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마음과학의 국제화와 체계화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올해에는 2023년부터 학술교류를 시작한 한마음과학원과 베트남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종교와 사상 연구소가 활발한 학술토론과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호앙 티란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종교와 사상연구소 소장이 '베트남 불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한마음국제문화원 실장 청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가이드북'을,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일심이란 무엇인가'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한마음아카데미 연구실장 혜유 스님, 윤종갑 동아대 교수,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한마음선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신중일 기자

5년 만에 모인 공불련 "국민행복" 발원

6월 9일 법주사서 수계법회
사전 신청한 75명 수계받아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5년 만에 합동수계법회를 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공불련)가 국민 행복을 위한 공복(公僕)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공불련은 6월 9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에서 제21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전계사로 법주사 율주 무상 스님이 법상에 올랐으며, 사전 신청한 75명이 수계를 받았다.

정승윤 회장은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강원과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전 기관에 불자회장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오송의료행정타운 불자회도 구성됐으며, 과천 및 대전청사도 곧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생명나눔 홍보대사에 가수 김국환

6월 10일, 홍보대사 위촉식
환자 치료비 250만원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가 '타타타' 김국환 가수를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일면 대종사는 6월 10일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가수 김국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사진〉

일면 대종사는 "김국환 가수의 대표곡 '타타타'의 가사는 삶을 관조하는 불교 철학을 담은 법문 같다"면서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를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 기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국환 홍보대사는 "여러 봉사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에 따라 마음이 이끌려 생명나눔 홍보대사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미력하게나마 본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큰스님께서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환자 치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 생명나눔은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으로 고통받는 17세 환자에게 25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환자를 대신해 담당 사회복지사가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지작사 군종법사, 군포교 활성 방안 토의

6월 11~12일, 선봉사 교육관서
전역 장병 신행활동 방안 모색



지상작전사령부 군종법사들이 군포교 활성화를 발원하며 지혜를 모았다.

지작사 군종법사들은 6월 11~12일 지작사 군법당 호국 선봉사(주지 정행 이익수 법사) 교육관에서 직능토의를 개최하고, 군포교를 위한 전법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장 자광 대종사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지작사 예하 법사 40여 명이 참석했다.

직능토의를 주관한 정행 이익수 법사는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지작사 예하 법사들이 다시 한번 불법홍포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올바른 군불자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일차 토의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법당으로 군법당을 신축 중인 곳과 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부대의 군법사가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군법당 신축 과정 노하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와 함께 전역 장병들을 위한 신행활동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내영 기자